

# ‘호남 성장 견인’ 글로벌 에너지 연구대학 시동

## 세계 초일류 한전공대 본격화

한전공대는 단순 공과대학의 설립이 아닌 광주·전남의 미래를 밝힐 두뇌의 결집이라는 의미가 크다. 현존하는 국내 모델은 포스텍(포항공과대)과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다. 하지만 한전은 포스텍과 카이스트를 뛰어넘는 세계 초일류 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대학 설립=한국전력공사 내에 한전공대 설립 전담팀(TF팀)이 구성됐다. TF팀은 모델이 될만한 국내외 공과대학들을 조사한 뒤 인재상·연구범위 등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새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한 TF팀을 확대했다”며 “초기 단계로 기초 조사를 한 뒤 지자체·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이 설립한 포스텍은 20세기 제철

## 한전-지자체-정부-대학 상생협력 모색

### 광주·전남 유치 경쟁...혁신도시 투자 과열

산업의 총아이자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영남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전공대는 21세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호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교육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신기술 융합형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포스텍과 카이스트의 모델을 조사하고 있지만, 한전은 이보다 업그레이드된 대학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전·지자체·연구기관 머리 맞대=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시·전남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한전 TF팀과 함께 광주시·전남도·광주전남연구

원은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설립될 수 있도록 공조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도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 “협력과 상생의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전남대는 신설될 한전공대와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한전공대 상생협력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팀은 한전공대와 발전적 협력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세부 콘텐츠 및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치 경쟁·부동산시장 뒝=우려도 있다. 아직까지는 표면화하지 않았지만

광주·전남의 유치 경쟁이다. 입지 선정을 놓고 ‘나주냐’, ‘광주냐’의 물밑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전·광주시·전남도 등 한전공대 설립 준비 관계자들은 “한전공대가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치 않다”며 “지금은 정치권의 공감대와 협력을 얻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설립이 이슈화되면서 나주혁신도시의 투자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에는 ‘한전공대 호재’라는 문구가 등장했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한전공대는 현금이다’, ‘한전공대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호재’ 등의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부터 투자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국정원 댓글 사이버 외곽팀’ 수사 착수

## 검, 중간 조사결과 확보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a)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적폐청산TF는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여론조작에 개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

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된 이번 자료가 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대한 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70여 명으로 꾸려진 심리전문 직원들이 ‘일부 외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감행한 인터넷상 정치·선거 개입 활동이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진행된 이번 국정원 자체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서 다루지지 않은 대규모 여론조작 활동 정황이 새롭게 포착돼 기존 재판에서 정점이 된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 범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재판부에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

##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건국절 논란 일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보상금이 선순위자 1인에겐만 지급됐다”며 “보상금은 현재대로 지급하면서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0여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늦기 전에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더 많이 발굴하고 연구해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다”며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영구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평해전 때 중상을 입은 문병욱 일병 아버님으로부터도 전역증이 등기우편으로 와서 설움이 복받쳤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정말 면목 없고 부끄러운 일이며 앞으로는 인편으로 직접 태극기를 전하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숭고한 애국심이 병역의무가 없는 해외동포 청년의 자원입대로, 연평해전 젊은 용사의 심장으로 이어졌다”며 “어떤 말로도 충분한 위로와 보답이 되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독립 유공자와 유족 154명과 문 대통령에게서 직접 포상을 받는 친수자(親受者) 10명, 국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47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3명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광복절 경축행사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광주·전남에서 경축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에서 윤장현 시장 등 주요인사,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해 경축식을 연다. 이어 오전 11시40분에는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에서 타종식을 한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광복회 회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기쟁’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 연내 2곳...요금 감면 혜택 등 산모 만족도 높아

전남도가 저출산 극복과 분만 취약지역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산모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는데다, 이용요금 감면 혜택 등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의 이용만족도가 산모들로부터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올해 안에 강진과 완도에 공공산후조리원 2, 3호점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4호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산후조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원바시 시설 개선과 각종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해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은 해남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정부 승인 공공산후조리원이다. 해남종합병원의 산부인과 및 소아과와 연계돼 산

모의 출산부터 산후조리, 신생아 건강관리까지 원스톱 케어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보다 38% 이상 저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산모,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에는 60% 이상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매일 30여 명의 예약 대기자가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호점 이용객 472명을 대상으로 의뢰된 진절도 등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은 해남 거주자가 49%로 가장 많았고, 강진과 완도 등 1시간 이내 인접 거주자도 47%나 됐다. 기타 지역은 4%였다. 이용 산모 가운데 세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등 감면 대상자는 62%, 일반 이용자는 38%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권설링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매장 생활속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현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기 절대 안 닿는 방법과 저금리시대 효율적인 부동산권설링 재테크 노하우 강의!

특전: 자격 취득대상시, 국가공인부동산전문경영인사, 부동산전문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집제 일정후 평생지도(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강의기간	9월~12월(15주) 각 과정 선착순 50명마감
장소	조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매주(수요일) 야간: 7시~9시 매주(목요일) 야간: 7시~9시
수강료	20만원 20만원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권설링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 모집기간 : 2017년 8월 2일(수) ~ 2017년 9월 7일(목)
- 교육기간 :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ege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8월 25일(금)
- 교육기간 :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 :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ilel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